

영어 IC 자음군에 관한 역사적 조명과 음운적 고찰

오 관 영
(전남대학교)

Oh, Kwanyoung. (2010). A phonological study and historical view on IC clusters in English.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6(4), 201-22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l/-deletion in IC clusters which are composed of a lateral followed by consonants at syllable-final position in English. For this, I have analyzed /l/-deletion in words depending on conditions and theoretical analyses such as Sonority Sequencing Generalization, Cluster Simplification, Complex sounds and merger, and Feature Geometry, but they didn't offer a very satisfactory explanation to the phenomenon. Therefore, I adopted a historical approach in order to determine the cause and origin of /l/-deletion in IC clusters, and then as a phonological analysis tool, I relied on the constraints and their ranking in Optimal Theory framework for explaining /l/-deletion in the clusters more consistently. As a result, I can explain the phenomenon more explicitly than from the above mentioned analyses.

[sonority generalization, feature geometry, constraints, ranking, /l/-deletion, IC clusters, 영어 IC 자음군에 관한 역사적 조명과 음운적 고찰]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음절말의 설측음(lateral)과 후속하는 자음이 IC 유형의 자음군(cluster)을 이루는 영어단어들에서 /l/이 그 환경에 따라 나타나는 변이적인 특성을 음운론적 측면으로 규명해보며 아울러 역사적 측면으로도 살펴보는 데에 있다. 즉, 어두운(dark) /l/이 모음과 자음 사이에서 음성형태로 실현되지만 경우에 따라서 탈락(deletion)이 되는데 이를 통시적인 측면과 공시적 측면에서 설명하려는 것이다. 다른 부가적인 목적은 멀티미디어를 활용한 영어발음 학습을 위해 36명 학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중 19.4%가 /l/ 발음이 어렵다고 응답한 사실에 기인한다(오관영,

*본 논문은 2010년 대한언어학회 가을학술대회에서 발표된 것임.

2004, p. 28, 29). 본 연구에서는 분명 /l/이 기저에 존재하였지만 탈락된 것으로 보고 그 현상을 설명한다.

Hammond(1999, p. 61)에 따르면, 음절말 자음군 중 IC 유형의 말음들(codas)은 접미사화된(suffixed) 경우와 비접미사화된 경우로 구분된다. 접미사화된 IC 유형으로는 [l], [lz] 두 개만 존재하지만, 비접미사화된 경우들은, 유성 저해음들인 [lg, lz, lʒ]와 [l], [l·]을 제외하고는, 모두 저해음과 비음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음절말 자음군은 음절구조와 공명도배열일반화(Sonority Sequencing Generalization: SSG)(Selkirk, 1984, p. 116)나 공명도거리(sonority distance)(Roca & Johnson, 1999, p. 256) 등과 같은 제약에 따라 결정된다. 음절구조와 관련하여 자음군조건(Cluster Condition)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말음에 나타날 수 자음의 허용범위를 한정하며 말음에는 조음위치(place)가 다른 두 자음이 나타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제한하기 때문이다(Yip, 1991, p. 63; 양선기, 2009). 따라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help, film, folk, calm’과 같은 예들의 음절말 자음군에서 /l/의 변이적 속성에 대해 이들 조건과 제약이 어떤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려 한다.

Borowsky(1986, p. 118)의 자음군단음화(Cluster Simplification: CS)는 인접한 두 자음 중 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을 말한다. Borowsky는 이 CS를 동일한 두 자음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에 적용하지만, Casagrande(1984)는 그리스어에서 차용된 영어단어들 가운데 /ps/가 /s/로, /pn/이 /n/으로, /mn/이 /n/으로 발음되는 즉, 이들 첫 번째 자음이 탈락하는 것도 CS로 본다. 그리고 음절구조를 위배하지 않기 위해 /gn/과 /gm/이 어두(‘gnostic’)나 어말(‘design, paradigm’)에서 /g/가 탈락하거나, /mb/와 /·g/가 각각 어말에서 /b/(‘bomb’), /g/(‘strong’)가 탈락하는 것도 CS로 본다(양선기, 2009, p. 307, 308). 한편 이와 같은 CS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Côté(2004)는 Quebec French, Catalan, Hungarian, 영어 일부 변이형에서 음절말 위치에 있는 유음-폐쇄음군 중 폐쇄음이 탈락되는데, 이것은 인식의 유사성(perceptual similarity)에 기인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Colantoni와 Steele(2007)는 CS에 의한 자음탈락 발생은 자음군에 속하는 두 자음이 조음방식, 조음위치, 유성 등에서 적어도 두 가지가 유사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면 ‘balk’와 ‘calf’ 등과 같은 음절말 자음군에서도 과연 CS가 발생하는지를 다른 유사한 IC 유형 자음군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Sagey(1986)는 /mb, kp, lp/와 같은 복합자음(complex sounds)을 두 종류로 구분한다. 한 가지는 Lab, Cor, Dor과 같은 구강조음자들(oral articulators)에서 둘 이상의 조음자들이 동시에 조음작용 하는 경우이고([k]+[w]->[k^w]), 다른 한 가지는 연속된 두 음의 빠른조음(quicker pronunciation)([m]+[b]->[mb])에 의한 경우이다. 후자는 두 음이 동일 조음자가 사용되고 동일자질이지만 자질 값이

다른 경우에 발생한다(Duanmu, 2009, p. 25). 그렇다면 음절말 자음군에서 ‘melt, calk’처럼 /l/ 발음이 될 때와 되지 않을 때, 구강조음자 동작과의 연관성 측면이나 융합(merger)의 측면에서 검토해보려 한다.

음절말 자음군에 대한 또 다른 분석으로 Clements(1985a)와 Sagey(1986)의 자질도형(feature geometry) 측면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때 Holt(2000)의 자질도형도 함께 고려하려고 하는데, 이유는 그가 Spanish의 IC 유형 자음군에서 일어나는 마찰음화를 Cor 절점아래 /l/의 음변화로 설명하기 때문이다. 즉, Holt는 기저형 /l/의 자질이 [+cont]와 [-cont]이며, /l/ 뒤에 후속하는 자음이 Cor 아래에 [-cont]인 경우, /l/의 [+cont]가 동화에 의해 [-cont]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음절말 자음군을 /l/과 후속하는 자음과의 관계 속에서 고려해보는 것은 /l/의 변이적 특성에 대한 어떤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l/ 탈락현상에 대한 고찰은 또한 통시적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 왜냐하면 현대영어에서의 /l/ 탈락을 애초 목음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 /l/이 존재한 것으로 볼 때 그 근거를 중세영어에서 찾을 수 있고, 이 /l/의 기원과, 탈락 및 삽입현상을 중세영어 음변화와 연관 지어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다(Beal, 1999; Pyles & Algeo, 1992; Dobson, 1957). 아마 이와 같은 통시적 측면의 고찰은 /l/ 탈락현상에 대한 음운론 측면의 설명이 용이치 않은 예들을 보다 잘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끝으로 음절말 IC 자음군의 /l/ 탈락현상을 음운이론적 틀에서 설명하고자, 다른 접근방식인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OT) 분석방식에 근거해, 일련의 제약을 설정하고 제약들간 등위를 정함으로써 앞에서 시도된 방식들에 대비 좀 더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하려한다.

II. 기존 접근방식을 통한 분석

1. IC 음절말 자음군

일반적으로 어말 위치에서 /l/에 후속하는 자음들은 /g, λ, ž, .:/을 제외하고 나타날 수 있다(양선기, 2009, p. 221). 이와 관련하여 Hammond(1999, p. 58, 61)에 의하면, 복합자음은 /-ed, -th, -s/와 같은 접미사 첨가로 이루어지는데, IC 유형의 말음들도 접미사화된 음들과 비접미사화된 음들로 유형을 구분한 후, 그는 IC 자음군에 대한 일반화(generalization)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IC 자음군

[l] can occur freely with any following obstruent or nasal.

하지만 이 일반화는 위에서 언급된 일부 유성저해음과 비음이 /l/ 뒤에 올 수 없다는 사실로 인해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본고에서는 접미사화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IC 유형 자음군으로 보고 /l/의 변이적 속성을 설명하려 한다. 그러나 위 (1)과 같은 일반화는 음절말 자음군의 유형에 대해서는 예시적이지만, 이들 자음군에서 발생하는 /l/발음 유무와 관련하여서는 어떤 실제적인 단서를 제공하지 못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음절말 IC 자음군에 대한 예들은 다음과 같다.

- (2) a. salt, melt, dealt, celt, halt, malt, silk, milk, talc,
film, wolf, self, gulf, gild, mold, help, felt, bulb,
false, valve, health, kiln, bells, helm
- b. talk, walk, chalk, balk, calk, stalk, folk, yolk,
calm, balm, psalm, palm, calf, half, calve, should,
could, would, holm, alms, halve, salve, Holmes

위 (2a)는 /l/ 발음이 되는 경우들이고 (2b)는 /l/이 탈락하는 경우들이다. 어말 위치에 올 수 있는 자음들 가운데 /l/의 분포와 관련하여, Duanmu(2009, p. 191)는 CELEX 어휘목록(lexicon)에서 101개의 VC형 운모(rhyme)와 두음들(onsets)에 대한 분포를 볼 때 [ŋ]형이 29개로 제일 많고, [ŋ]형은 17개, 그리고 [ŋ]형은 8개로서, 모음과 후속하는 설측음 배열이 다른 자음들의 배열보다 비교적 빈도수가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 음절구조, 자음군조건, 공명도 척도에 의한 분석

한 음절말에서 IC 유형의 자음군으로 나타날 수 있는 자음의 허용범위를 제한하는 제약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분절음배열제약이다. 이것은 음절구조에서 운모에 가능한 분절음 수를 셋으로 한정하며, 만일 말이 복합음인 경우 두 번째 자음은 반드시 [+cor]이어야 한다(Selkirk(1982)). 예를 들면 ‘mind’ [maɪnd]와 ‘paint’ [paɪnt]는 운모에 네 개의 분절음이 오지만 말음인 /d/와 /t/가 [+cor]임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하지만 음절말 자음군에서 /l/ 뒤에 후속하는 자음 중 /g, ŋ, ʒ, .:/이 올 수 없다는 사실은 분절음배열제약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이들을 제한하기 위한 다른 조건이 필요하다. Yip(1991, p. 63)은 말음에는 조음위치가 다른 두 자음이 함께 나타날 수 없다는 다음 (3)과 같은 자음군조건을 제안한다. 그러나 이 조건은 [+cor] 자질이 미명시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치음을 제외한 조음위치가 다른 자음이 인접하여 말음에 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양선기, 2009, p. 220).

(3) Cluster condition

Adjacent consonants are limited to at most one Place specification.

그러나 말음에 [+cor]인 /l/과 유성저해음이나 비음인 /g, λ, ŋ, .:/이 함께 올 수 없다는 점, 그리고 (2b)의 예들이 음절구조 분포에서 음절말 자음군으로 나타나는데 운모 구조에 어떤 문제점도 던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 조건은 문제가 된다. 따라서 이들 분절음배열제약이나 자음군조건으로 (2b)에서 발생하는 /l/ 탈락현상을 설명한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 Selkirk(1984)의 공명도배열일반화와 공명도계층 (sonority hierarchy)을 통해 말음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공명도배열일반화는 두음위치와 말음위치에 오는 자음군에 대한 제약으로서 다음과 같다.

(4) Sonority Sequencing Generalization

In any syllable, there is a segment constituting a sonority peak that is preceded and/or followed by a sequence of segments with progressively decreasing sonority values.

이 원칙에 따르면 공명도는 음절정점(peak)을 이루는 모음을 정점으로 음절주변으로 갈수록 점차 감소한다. 즉, 모음에서 공명도가 최고가 되고 두음이나 말음에서는 공명도가 최저가 된다. 그러나 위 공명도배열일반화는 두음위치와 말음위치의 자음군에 대해 포괄적인 정보를 주기 때문에, 본고에서 살펴보는 어말 자음군의 자음들간 공명도 차이를 보기 위해서는 보 다 상세한 공명도 값이 요구된다.

(5) Sonority hierarchy

Sound	Sonority index	Sound	Sonority index
A	10	nasals	5
e, o	9	vd fricatives	4
i, u	8	vl fricatives	3
R	7	vd stops	2
laterals	6	vl stops	1

이와 관련하여 Selkirk(1984)와 Durand(1990)은 모음과 자음을 공명도 지수(index)에 따라 위 (5)와 같이 구분한다.

위 공명도계층의 공명도 지수를 근거로 앞서 제시한 예들인 (2)에서 ‘melt, milk, self, gild, balk, calf’ 을 보면, 설측음이 6이고 무성폐쇄음이나 무성마찰음은

1, 3이기 때문에 위 공명도계층을 위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 (4)의 제약을 준수한다. 그런데 공명도계층과 관련하여 Roca와 Johnson(1999)은 다음과 같은 말에서 최소공명도거리가 2가 되어야 한다는 조건 든다. 이들이 제시한 공명도계층은 위 Selkirk가 제안한 것 보다 간략하게 계층을 구분하여, 모음-4, 유음-3, 비음-2, 저해음-1로 규정한다. 이렇게 보면 유음과 비음, 비음과 저해음과의 차이가 1로써 그들이 주장한 최소공명도거리가 유지되지 못한다. 물론 공명도 차이를 단적으로 규정한다는 것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더라도, 일단 Roca와 Johnson의 주장을 근거로 'kiln, film, calm' 을 보자. /l/과 비음의 공명도 차이가 1로써, 공명도배열일반화는 위반하지는 않지만 그들의 요구조건인 최소공명도거리가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단지 말음에서는 이 최소공명도거리 요구조건이 엄격히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음으로 더 설명되어야 할 문제로 남는다(Roca & Johnson, 1999, p. 264). 요약하자면 자음군조건, 공명도일반화, 공명도계층을 통해 위 (2b)의 예들을 설명하려고 시도하였지만, (2b)의 /l/ 탈락현상에 대해서 어떤 해결의 실마리도 주지 못한다. 따라서 다른 측면으로 이 문제를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3. 자음군단음화 분석

자음군단음화(Cluster Simplification: CS)는 복합자음군(complex cluster)을 조음상의 이유로 보다 간결하게 하기 위한 것이나 분절음배열제약에 따른 음절구조에 부합하기 위해서 자음이 탈락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Borowsky(1986, p. 118)는 CS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6) Cluster Simplification

$$C_i \rightarrow \cdot \cdot / _ C_i$$

Borowsky의 제안은 예를 들어 접두사 /in/의 /n/이 동화에 의해 어간 'literature' 의 두음인 /l/의 조음위치 자질을 공유하게 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형태인 *illiterate에서 /ll/과 같이 중복자음(geminate consonants)이 되는 것을 제지하여 적격형이 도출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동일한 자음이 인접하여 나타나는 경우 한 자음을 탈락시키는 것이다. 한편 동일 자음이 연속해서 나타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어두나 어말에서 인접한 자음 중 하나가 탈락하는 현상도 일종의 단음화로 보는 좀더 포괄적인 경우들이 있다. Casagrande(1984)는 그리스어에서 차용된 영어단어들 가운데 'psyche, psoriasis, psychiatrist' 에서 /ps/가 /s/로 발음되어 /p/가 탈락하는 것이나, 'pneumonia' 에서 /pn/이 /n/으로 발음되어 /p/가 탈락하는 것, 그리고 'mnemonic' 에서 /mn/이 /n/으로 발음되어 /m/이 탈락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CS로 본다. 또한 /gn/과 /gm/이 어말 자음군을 이루는 'sign,

resign, design, paradigm' 을 보면, 이들 자음군에서 /g/가 탈락한다(양선기, 2009, p. 307, 308). 또한 /ːg/ 자음군인 'sing, long, hang, wrong' 에서도 /g/가 탈락하는데, /gn, gm, ːg/ 자음군이 어말위치에 오면, 공명도가 더 낮은 유성폐쇄음이 공명도가 더 높은 비음보다 음절정점에 더 가까이 놓이게 되어 결국 공명도배열일반화를 위반하게 된다. 따라서 음절구조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자음이 탈락하는 이와 같은 자음탈락현상도 일종의 CS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예들 중 'silk, balk' 을 보면, 'silk' 에서는 /l/이 발음이 되고 'balk' 에서는 /l/이 탈락한다. 하지만 /l/과 /k/가 조음위치의 공유로 인한 이유나 공명도배열일반화를 위반한 이유로도, 'balk' 에서 /l/탈락이 되는 원인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되지 못한다.

한편 이와 같은 CS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Côté(2004, p. 3)는 Quebec French, Catalan, Hungarian, 영어 일부 변이형들에서, 예를 들면 Catalan의 음절말 유음-폐쇄음군(*fort* ('strong') /fort/ → [for], *alt* ('tall') /alt/ → [al])에서 폐쇄음이 탈락한다는 것은 인식의 유사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이와 달리 Colantoni와 Steele(2007)는 CS 발생 원인을 조음적 측면에서 본다. 즉, 조음방식, 조음위치, 유성 세 매개변항(parameter)에서 적어도 두 매개변항이 유사해야 자음군에서 자음탈락이 발생한다고 본다. 따라서 인접한 두 자음이 조음방식과 유성에서 매우 유사하면 이들에서 단음화 발생 비율은 상대적으로 더 높다는 것이다. 또한 Herrick(1999, p. 70)에 따르면, Catalan의 CS에서는 저해음이 동기음(homorganic)인 한 자음과 함께 어말위치에 올 때는 저해음이 음성형태로 표출되지 못한다고 한다. 예를 들면 *camp* ('field') /kɑmp/에서 /m/과 /p/가 모두 순음(labial)이기 때문에, /p/가 탈락하고 [m]만이 발음되어 [kɑm]처럼 발음되는 것이다. 이것은 조음위치 측면에서 두 자음이 조음점이 동일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단음화라고 할 때, 종전 Colantoni와 Steele의 주장과 유사한 입장이다.

그렇다면, 만일 'calf, half' 등과 같은 음절말 IC 유형 자음군에서 /l/ 탈락을 일종의 CS로 가정한다면, /l/ 탈락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위에서 언급한 CS의 원인은 크게 공명도배열일반화의 위반, 인식상의 유사성, 그리고 조음상의 유사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어말 자음군으로 /l/과 /f/를 보면 일차적으로 공명도배열일반화는 위반하지 않는다. 그 다음 /lf/를 조음점과 관련해서 보면 /l/은 치경음이고 /f/는 순치음이기 때문에, 어떤 조음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단서가 없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살펴본 CS는 위 (2b)에서 제시된 예들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구실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적절한 설명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4. 복합자음과 융합(merger)에 의한 분석

Duanmu(2009, p. 25)에 따르면, 한 음절의 어두나 어말에서 인접한 두 자음이 융합하는데 이것을 복합자음으로 보며, 또 이 융합에 의해 형성된 복합자음은 조음중복(gestural overlap)의한 것이라고 본다(Browman and Goldstein 1989). 이 융합과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Duanmu(2009, p. 24)가 제시한 음과 자질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다음 (7)과 같다. 여기서 Duanmu는 Keyser와 Stevens(1994), Padgett(1995)에 따라, 각 조음자는 협착(stricture)자질([stop], [fricative])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질가(feature value)를 갖는다고 가정한다.

(7) 음 자질구조

- [p] Labial – [+stop]
Soft Palate – [-nasal]¹
Vocal-cords – [-voice]
- [m] Labial – [+stop]
Soft Palate – [+nasal]
- [s] Coronal – [+fricative]
Vocal-cords – [-voice]
- [ʃ] Coronal – [+fricative, -anterior]
Dorsal – [+fricative]
Vocal-cords – [-voice]
- [l] Coronal – [+lateral]

복합자음에서 조음중복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가 있다. 다음 (8a)는 두 개의 별개 조음자(articulator)가 동시에 조음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8b)는 별개로 두 조음작용을 하는 한 조음자가 동시에 조음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², 그리고 (8c)는 한 조음자가 동일

자질에 대해 상호 다른 자질가를 가지면서 동시에 조음작용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8c)에서 두 자음의 융합의 결과에 대한 조음자에 관해 Duanmu가 명확히 규명하지 못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제시한다.

아래 (8c)와 같이 수정 제시한 것에 대해, Duanmu는 단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로만 언급하고 있을 뿐 다른 부가적인 언급을 못하였지만, ‘comb’과 같은 경우에 국한하여 본다면 [m]+[b] -> [m]이 되기 때문에, 이 때 (8c)는 융합이라기

¹ [-F] 같은 자질표시는, 일반적으로 자질가(feature value)의 이원적인 의미 중 하나인 ‘-’와 같이 어떤 자질의 특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미명시된(unspecified) 자질을 의미한다(Duanmu, 2009, p. 24).

² 이것은 파찰음에 해당되는데 경우에 따라 파찰음을 별개의 두 음소 결합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을 함축한다.

보다는 자음탈락이 일어난 경우가 될 수 있다.

(8) a. 상호 다른 조음자, 동일 또는 다른 자질

Time-1	Time-2	Time-1	
Art _a -[F]		->	Art _a -[F]
	Art _b -[F]	->	Art _b -[F]

예: [k] (Dor-[+stop]) + [w] (Lab-[+round]) -> [k^w]

b. 상호 동일 조음자, 다른 자질

Time-1	Time-2	Time-1	
Art _a -[F _i]	Art _a -[F _j]	->	Art _a -[F _i , F _j]

예: [t] (Cor-[+stop]) + [s] (Cor-[+fricative]) -> [tʰ] (Cor-[+stop, +fricative])

c. 상호 동일 조음자, 동일 자질의 다른 자질가

Time-1	Time-2	Time-1 & 2	
Art _a -[+F _i]	Art _a -[-F _i]	->	Art _a -[+F _i][-F _i] ³

예: [m] (SP-[+nasal])+[b] (SP-[-nasal]) -> [mb] (SP-[+nasal], [-nasal])

이제 본고에서 분석하고자 하는 예들 중 먼저 ‘melt, felt, celt’와 같이, /l/이 발음되는 경우를 Duanmu 방식대로 적용하면, 다음 (9)와 같이 융합이 발생해야 하지만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즉, /l/과 /t/는 동일한 한 조음자인 Coronal에서 조음됨으로 위 (8b) 유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융합으로 마치 과찰음처럼 조음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음으로 조음된다.

(9) Time-1 Time-2 *Time-1

Art _a -[F _i]	Art _a -[F _j]	->	Art _a -[F _i , F _j]
-------------------------------------	-------------------------------------	----	--

예: [l] (Cor-[+lateral])+[t] (Cor-[+stop]) -> *[lʰ] (Cor-[+lateral, +stop])

그러면 /l/이 탈락되는 ‘calk, stalk, balk’와 같은 경우들을 보자. 아래 (10)에서 보면, /l/과 /k/는 상호 다른 조음자와 서로 다른 자질가를 갖기 때문에,

³ Duanmu는 각 조음자(예, Labial)는 어느 한 자질가(예, [+round] 또는 [-round])를 갖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한 음에서 자질이 두 번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오직 다른 두 조음자가 동시에 조음되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면 [□]인 경우, [+fricative]은 Labial과 Dorsal에 의해 설정된다.

원순음화가 발생하는 위 (8a)와 같은 유형의 융합이 되어야 한다. /l/이 연구개음화가 되어 어두운 [ɫ]로 조음되는 ‘silk, milk, talc’의 경우들이 그에 해당된다고 보여지며, 이것은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면 가능한 설명이 될 것이다.

$$\begin{array}{ccc}
 \text{(10) Time-1} & \text{Time-2} & \text{Time-2} \\
 \text{Art}_a\text{-[F]} & & \rightarrow \text{Art}_a\text{-[F]} \\
 & \text{Art}_b\text{-[F]} & \rightarrow \text{Art}_b\text{-[F]} \\
 \text{예: [l] (Cor-[+lateral]) + [k] (Dor -[+stop])} & \rightarrow & [\text{k}]
 \end{arr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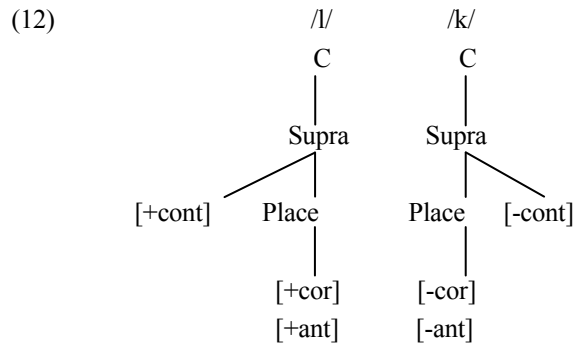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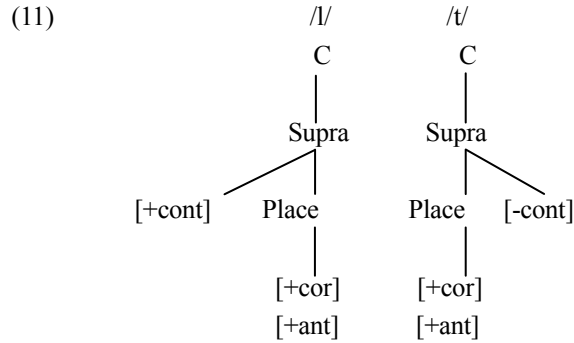
하지만 위와 동일한 환경의 복합자음이 존재하는 ‘calk, stalk, balk’는 앞의 예들과 달리 /l/이 발음되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가 위 (10)과 같은 방식이든 (8)의 어떤 방식이든 융합에 의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Sagey(1986)는 이러한 복합음을 다시 조음적 측면에서 두 종류로 구분한다. 한 가지는 구강조음자(oral articulators)인 Labial, Coronal, Dorsal 중에서 두 조음자가 동시에 동작하는 경우이며, 위 (8a)가 그에 해당한다. 다른 한 가지는 연속하는 두 음의 빠른조음(quicker pronunciation)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위 (8b, c)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선비강음화 폐쇄음(pre-nasalized stop) [ᵐb]은 [m], [b]에서 Soft-palate의 연속적 조음동작-[+nasal, -nasal]을 내포하기 때문에 Sagey는 빠른조음이 이루어진 복합음으로 분류한 것으로 보아 진다. 하지만 Sagey의 이러한 주장이 일면 복합음에서 발생하는 음운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방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 이유는 ‘calk, stalk, balk’등과 같이 /l/이 발음되지 않는 현상을 토대로 어느 부류에 속하는 복합음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silk, milk, talc’와 같이 /l/이 발음되는 단어들과 비교할 때, 말씀으로써 비교되는 환경은 동일하게 /-lk/이기 때문에 어느 경우로 분류하든 /l/이 탈락하는 현상을 설명하는데 문제가 된다. 또한 앞에서 논의된 /l/이 발음되는 ‘melt, felt, celt’와 같은 경우는 /l/과 /l/는 동일한 한 조음자인 Coronal에서 조음되지만 자질이 달라, Sagey가 언급한 빠른조음에 의해 융합이 발생하는 복합음이라고 한다면, 파찰음처럼 두 음이 한 음처럼 동시에 조음이 되어야 하지만 사실은 별개의 음으로 조음되기 때문에, 구강조음자의 동작과의 어떤 연관성에 의한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5. 자질 기하학적 측면에 의한 분석

음절말 IC 자음군에서 일어나는 /l/ 탈락현상을 자질도형 측면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서 살펴보았던 접근방식과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려 한다. Clements(1985a)의 자질도형을 근거로 앞서 논의된, /l/이 발음되는 ‘salt, halt,

'gild, mold'의 어말 자음군과, /l/이 발음되지 않은 'chalk, talk, calk, folk'의 어말 자음군을 각각 나타낸다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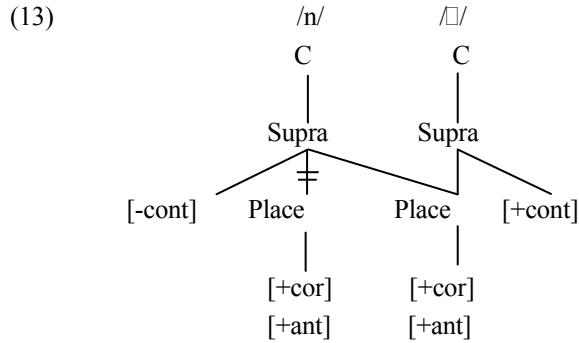


위 두 자질도형의 차이는 (11)에서 /l/과 /t/는 각각 조음장소절점 아래에 동일 자질인 [+cor, +ant]가 인접하여 나타나지만, (12)에서 /l/과 /k/는 조음장소절점 아래 각기 동일 자질이 나타나지만 자질가는 [+cor, +ant]와 [-cor, -ant]처럼 상호 다르다.

그런데 위 (11)과 같은 도형은 조음장소절점 아래 동일 자질이 연속해 나타남으로 부분적 측면에서 OCP를 위반한다. 여기서 관련된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면 'eighth, hundredth, tenth'의 어말 자음군인 /tθ/, /dθ/, /nθ/를 먼저 간략히 고려해보겠다. 이 자음군에서는 폐쇄음 또는 비음 다음에 치간음(interdental)이 인접해 나타남으로 부분동화(partial assimilation)인 치음화가 발생한다. 이 동화현상을 자질도형으로 나타내면 인접한 자음간에 발생하는 음운현상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예 가운데 /tθnθ/의 어말에서 발생하는 동화현상을 자질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아래 (13)에서 보듯이 /n/, /θ/ 두 분절음의 조음장소절점 아래 [+cor, +ant] 자질이 인접하여 나타남으로 OCP를 위반한다. 따라서 OCP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θ/의 조음장소절점에서 /n/의 초후두(supralaryngeal) 절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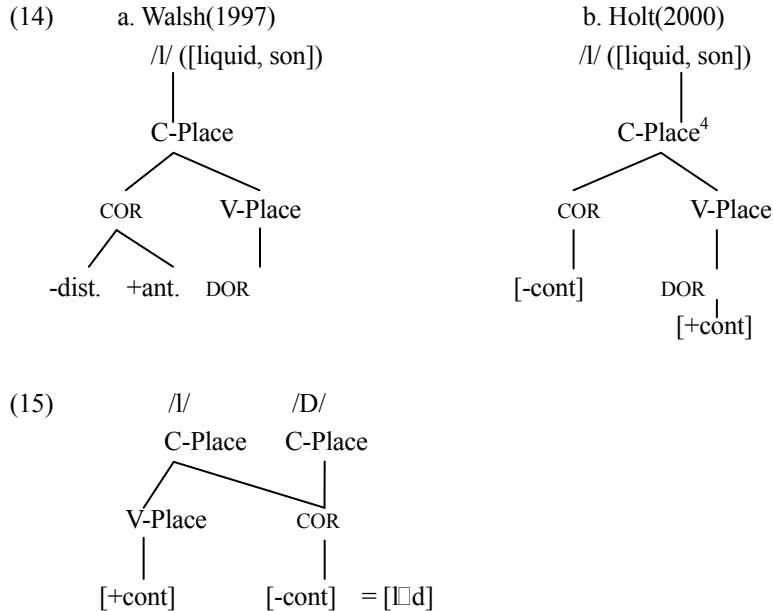
분사(spreading)가 되고, /n/의 조음장소절점 아래에 있는 [+cor, +ant]는 단절(delinking)되는 것으로 부분동화현상을 설명한다.



그렇다면 위 (11)의 경우, OCP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l/이 후속하는 분절음 /t/에 의해 동화되어 /l/의 조음장소절점 아래 본래 가지고 있던 [+cor, +ant] 자질이 단절되고, /t/의 조음장소절점이 /l/의 초후두절점으로 분사가 된다고 설명하더라도, 위 (13)과 같은 부분동화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OCP 위반이 되지 않는 (12)에서 /l/ 탈락현상이 발생한다. 일면 (11)를 OCP 위반이 되지 않도록, 분사를 통해 동시조음(simultaneous articulation)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면, (12)에 대해서는 /l/과 /k/가 상호 다른 자질을 갖고 있어 조음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조음의 편의(easy of articulation)를 위해 /l/이 탈락한 것으로 설명할 수도 있다.

이 문제와 연관 지어 Holt(2000)가 설명한 Spanish의 IC 유형 자음군의 마찰음화를 설명하기 위해 그가 도입한 자질도형을 고려해 보겠다. Spanish에서는 /l/은 폐쇄음과 마찰음 앞에 온다: e^hl^hdaño, e^hl^hote. 이 때 유의해 볼 점은 /l/이 후속하는 음에 따라 [+cont]나 [-cont]로 실현된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한 분절음이 상반된 음으로 조음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그는 Mascaró(1991)의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도입하였는데, Mascaró는 /l/이 /d/ 앞에서 음운상으로는 [+cont]이지만 음성상으로는 [-cont]로 보는 입장이다. Holt는 이와 같은 입장을 Walsh(1997)의 자질도형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아래 (14a)는 Walsh의 자질도형이며, (14b)는 Holt의 수정된 자질도형이다. Holt의 도형은 [±cont]라는 두 자질가가 음운론상과 기저에 존재함을 의미한다. 일단 e^hl^hdaño 예만 본다면, Holt는 기저형 /l/의 자질이 [+cont]와 [-cont]이고, /l/에 후속하는 /d/가 COR 아래에 [-cont] 자질인 경우, /l/의 [+cont]가 동화에 의해 [-cont]로 된다고 한다. 이것을 자질도형으로 나타내면 다음 (15)와 같다(Holt, 2000, p. 88).



여기서 Holt는 조음위치동화(place of assimilation)가 발생할 때, 위 (14b)와 같이 [-cont]는 필연적으로 /l/의 주요부류절점(C-Place) 아래의 coronal 체계를 따른다고 함으로 위 (15)처럼 /lD/가 [ɫd]로 됨을 설명한다.

‘hold, wolf, valve’의 경우, /l/이 기저에서 음운론상 [±cont] 자질을 갖고 있다는 가정이 용인되는 경우에 한하여⁵, /l/의 후속하는 음에 따라 일면 /ld/와 /lf/, /lv/의 음성형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영어에서 어두운 /l/은 ‘help’처럼 후속하는 자음 앞에서 연구개음화된다(velarized). 이 연구개음화를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고 할 때, ‘talk, balm’ 등과 같이 /l/ 탈락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중연구개음화(heavy velarization)가 일어난 것으로, 그리고 /l/ 탈락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경연구개음화(light velarization)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l/ 다음 [-cont]인 폐쇄음이 올 때와 [+cont]인 마찰음이 올 때, 즉 /l/ 다음 어떤 음이 후속하느냐에 따라 음성형 실현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금까지 자질도형을 통해 음절말 자음군에서 발생하는 /l/ 탈락현상을

⁴ C-Place는 primary feature node를, V-Place는 secondary feature node를 의미한다.
⁵ /l/를 [+cont]로 보는 입장- Zoque/Wonderly(1951), Chipewyan/Li(1946), Chomsky & Halle(1968), Frisian/Gussenhoven & Jacobs(1998), 그리고 Harms(1968), Anderson(1974), Ladefoged(1982); /l/를 [-cont]로 보는 입장- Basque/Hualde(1989), English/(McCawley(1979), Scots English/Chomsky & Halle(1968), Gallo-Romance/Jacobs(1991), 그리고 Kaisse(1998) - Holt(2000, p. 85,86)에서 인용함.

살펴보았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논의하여 온 유사한 환경에서 경우에 따라, /l/ 탈락이 변이적인 예들을 단지 음운론적으로 분석해 보았을 때, 그 현상을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명확히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현상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 먼저 역사적 측면에서 그 기원과 변화추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6. 역사적 측면의 고찰

/l/ 탈락현상에 대해 통시적인 측면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이유는 /l/과 관련된 음변화 현상이 중세영어에서 시발되었기 때문이다(Dobson, 1957; Ekwall, 1980; Pyles & Algeo, 1992; Beal, 1999). 이것은 본 연구의 서두에서 /l/ 탈락을 애초 목음으로 보는 관점과 달리, 존재하였지만 탈락한 것으로 본 전제와 부합된다고 한다.

/l/ 탈락현상을 고려하기 전, /l/과 연관된 일부 현상을 부가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중세영어의 /l/ 탈락이 발생한 시기에 이와 반대로 어원 또는 철자발음(spelling pronunciation)에 의해 /l/-삽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Pyles와 Algeo(1992)에 따르면, ‘fault’는 중세영어 ‘faute’에서 /l/이 삽입된 것으로 본다. 그 원인으로 라틴어 ‘fallita’ 철자에 의한 암시나, 라틴어 ‘falsus’에서 유래된 ‘false’ 경우와 같이 유추(analogy)로 인해 /l/이 삽입된 것으로 보며 ‘vault’도 같은 경우로 본다. 그리고 이들 단어들은 17세기에 이르러 ‘ought, thought’ 등과 운(rime)을 맞추기 위해 한 때 /l/이 탈락되었다가 다시 발음되는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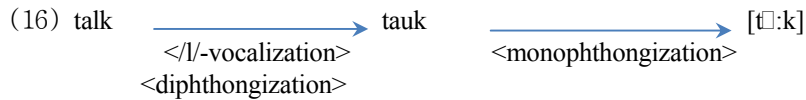
Ekwall(1980)도 /l/ 삽입을 어원의 유래를 통해 설명하고 있는데, 중세영어에서 점차 /l/이 발음되기 시작한 것은, 라틴어에 이어 다시 고대프랑스어에서 기원한 al>au, ol>o`u, 즉 au, o`u가 후기중세영어와 초기현대영어 시기에 라틴어의 영향으로 al, aul, ol, oul로 빈번히 쓰였는데, 예를 들면 중세영어 ‘faucon, faute, soudiour’ > ‘falcon, fault, so(u)ldier’ 처럼 /l/이 삽입되어 점차 발음된 것으로 본다. 또한 ‘reaume’ (고대프랑스어(Old French))에서 ‘ream’ (초기현대영어)로 차용되는 과정에서 ‘realm’ [relm]과 같이 /l/이 삽입된 것도 라틴어 ‘regalis’ 영향으로 본다.

철자영향으로 인해 /l/을 발음하는 경우들로는 /l/이 /m/ 앞에 오는 단어에서 볼 수 있고(Pyles & Algeo, 1992, p. 176), 그리고 결과는 동일하지만 의미해석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salve’ [s:·lv], ‘scalp’ [sk:·lp]와 같이 철자의 영향으로 /l/ 발음이 다시 복구된(restored) 것으로 본다(Ekwall, 1980, p.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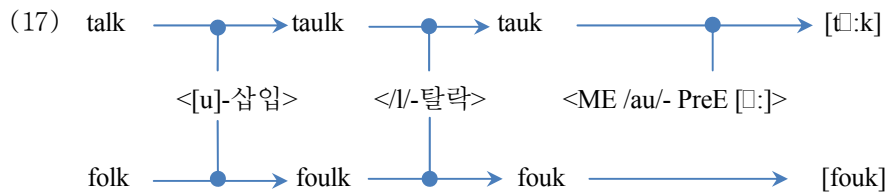
이제 중세영어시기에 발생한 /l/ 탈락 현상과 관련하여 Dobson(1957), Ekwall(1980), Pyles와 Algeo(1992), Beal(1999) 등의 설명을 검토해 보았을 때,

/l/ 탈락을 /l/-모음화(vocalization), 이중모음화, 단모음화와 같은 일련의 음운과정들이 순차적으로 적용되어 발생된 것으로 설명한다. /l/-모음화는 설측음 /l/이 단어 끝에서나 자음 앞에서 /o/, /u/와 같은 모음이나 반모음(semivowel) /w/로 대치되는 것을 말하며, 이 현상은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어, 불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우크라이나어 등과 같은 다른 언어에서도 발생한다. Collins와 Mees(2009)에 의하면 London, South East에서 성장한 화자들의 발음에서는 지금도 /l/-모음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은 오늘날 영어에서 진행중인 주요 음변화 중 하나라고 한다.

먼저 /l/ 탈락이 일어나는 ‘talk, walk, chalk, balk’ 등의 예들에서 ‘talk’ 을 고려하면, 중세영어 /a.l, al/에서 어두운 /l/이 /l/-모음화가 적용되어, /au/ 이중모음형태가 되고, 다시 /au/는 단모음화 (monophthongization)가 일어나 결국 [tɪ:k]과 같이 발음되는 것으로 설명한다(Dobson 1957, Pyles와 Algeo 1992). 즉, 중세영어의 발음은 철자를 따르는 경향이 있어서, 발음에서 /l/을 유지하였지만 일련의 음운과정을 통해 /l/이 탈락하게⁶ 되었고, 현재 대부분 이 /l/을 애초 묵음(silent)인 것처럼 간주하고 있다. Dobson과 Pyles와 Algeo의 설명을 기초로 ‘talk’ 의 /l/ 탈락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러나 Ekwall(1980)은 후중세영어(late ME)에 와서 [a], [o]와 어두운 /l/ 사이에 [u]가 삽입되어 공음(hollow sound)⁷이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au, ou/에서 /l/은 /au, ou/와 /k, f, v, m, p, b/ 사이에서 탈락되어 /au, ou/가 되고, 이들 모음들은 중세영어에서 현대영어로 들어오면서 각각 /au/는 [ɔ:]로, /ou/는 [ou]로 발음된다. 그러면 본 연구에서 살펴본 ‘talk’, ‘folk’ 의 /l/ 탈락현상은 Ekwall의 방식에 따라 분석할 때 아래와 같다.



⁶ /l/이 모음화로 모음이 된 후 소실(loss) 된 것이기 때문에, /l/이 탈락(deletion)되었다고 보는 것과 다르지만 선행에서 사용된 관례대로 탈락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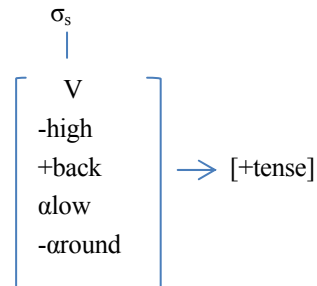
⁷ 이 음은 묵음(silent)이 아니라 일종의 공명과 같은 울림소리로 해석되며, ‘ball’ [baul] > [bɔ:l], ‘bold’ [bould]와 같은 경우도 발생한다고 보았다(Ekwall 1980).

위와 같은 음변화 과정은 ‘yolk, Holms’ 와 같은 예들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으로 /l/ 탈락이 발생하는 다른 유형인 ‘calf, half, calve, balm’ 와 같은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Pyles와 Algeo(1992)는 이들 예들을 위 (16)과 같이 설명한다. 즉, /al/에서 /l/-모음화로 /au/가 되고 /au/는 /f, v, m/ 앞에서 다시 [ɔ:]로 발음된다고 한다. 즉, 이들은 /l/ 탈락을 /l/-모음화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본 것이다.

한편 Beal(1999)는 중세영어 /a/는 다음 두 환경조건에 순응하는데, /au/로 먼저 이중모음이 되고, 이 이중모음은 ‘tall’ 과 같이 /ll/ 앞에서는 /au/ > [ɔ:]로 단모음화가 되거나, 또는 ‘balm’ 과 같이 IC 앞에서는 /au/ > [a:]로 단모음화가 되고, /l/은 탈락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여기서 [a:], [ɔ:]의 장음화(lengthening)에 관해 고려해 볼 점은, Halle와 Mohanan(1985)은 ‘balm, father, rajah, baud’ 등에서 후어휘부에 적용되는 모음조정규칙인 a/o-긴장화(Tensing)가 이들 강세모음(stressed vowels)에 적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Jensen, 1993, p. 224). 예를 들면 ‘balm’ 강세모음에 a/o-긴장화 규칙이 적용되면, /a/가 /a:/로 강세모음의 음성긴장형(phonetic tenseness)이 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balm’ 이 [ba:m]처럼 발음되는 것도 모음 /a/에 이 규칙을 적용시킨 결과로 생각된다. 이런 장음화는 /l/ 탈락으로 인해 선행하는 모음이 긴장화가 되고, 이것은 곧 음성형태에서 모음의 장음화로 이어지는 연속적 과정으로 볼 수 있다.⁸ Halle와 Mohanan의 a/o-긴장화는 다음과 같다.

(18) a/o-Tensing



Ekwall(1980)은 ‘calf’ 에 관해서 위 (17) 과정을 따라 /l/ 탈락이 발생한 것으로 설명한다. 즉, ‘calf’ 에서 [u]-삽입이 되고, 초기현대영어 때 [au]는 (1)f, (1)v, (1)m 앞에서 [a:]로 단모음화가 되어 [ka:lf]가 되는데, 16세기에 들어와 /l/이 탈락이 되면서 결국 [ka:f]가 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음변화

⁸ Kiparsky(1995)가 모음 단음화와 관련 지어 논한 /u/에 대해 Hale(2007, p. 129)는 /u:/로 본다.

과정은 ‘half, calve, halve, alms, balms, calm, palm, psalm’ 등에서도 일어난다.

다음은 /l/ 탈락이 ‘should, would, could’ 에서 일어나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Collins와 Mees(2009)는 이들에서 발생하는 /l/ 탈락을 어떤 환경에 따른 조건이나 음운과정에 대한 언급 없이, 단적으로 /ould/ > /Ud/와 같이 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곧 ‘sight, right, weight’ 등에서 마치 /gh/가 묵음이 되듯이, 여기서 /l/도 일종의 묵음이 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l/ 탈락 발생에 대한 원인이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한다.

Kiparsky(1995, p. 643, 644)는 어휘확산(lexical diffusion)이 어휘유추(lexical analogy)에 의한 한 과정으로 연관지어, 음운규칙화(phonological regularization)라고 할 수 있는 한 예로 모음 /u:/의 (Kiparsky, 1995, p. 643, /u/로 표기) 단음화(shortening)를 언급한다. ‘cook, hook, shook, rook’ 등과 같은 단어를 보면, 단음화가 [-anterior] ____ [-anterior, -coronal] 환경에서 규칙적으로 일어나는데, 이 규칙의 환경을 확대해서 단음화 환경의 좌우 어느 한쪽을 명시하지 않는다. 이 확대된 환경에서 단음화가 어휘적으로 독특한 방식(idiosyncratic manner)으로 발생하는데, 환경이 단지 ____ [-anterior, -coronal]라고 하면 ‘took, book, nook’ 등에서 일어나는 단음화를 설명한다. 다음이 환경을 [-anterior] ____과 같이 확대하면, ‘could, should, good’ 등에서 일어난 단음화를 설명한다(Hale, 2007, p. 129). 비록 /l/ 탈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 없이, Kiparsky가 단지 모음의 단음화 측면으로 ‘could, should’ 를 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규칙 환경의 확대만으로 단음화를 설명한 것은 규칙 환경을 너무 추상화시킨 것이라고 보며, 또한 모음의 단음화와 /l/ 탈락 발생에 대한 구체적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Ekwall(1980)은 ‘should, would’ 에서 /l/ 탈락이 발생하는 이유를 두 가지 가능성에 둔다. 하나는 모음에 약강세(weak stress)로 인한 것일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은 앞서 논한 Kiparsky의 ‘could, should’ 단음화 설명보다는 좀더 설득력이 있지만, 약강세의 모음과 인접한 /l/의 탈락을 연계시켜 볼 때 여전히 /l/ 탈락 원인에 대해서 의구심이 든다. 다른 가능성으로는 ‘could’ 처럼 ‘should’ 가 초기현대영어에서 [□u:ld, □u:d, □ud]와 같이 /l/의 유무가 변이적이었다는 사실에 있다. [□u:d]와 같은 음성형태에서 모음 [u:]도 ‘could’ 의 영향으로 인해 현대영어에서 [□:·1, □(□)l; □ud, □□d]와 같이 나타난다고 본다(Ekwall, 1980, p. 120). 이와 별도로 어원적 고찰을 해보았을 때, ‘would, should’ 의 영향으로 ‘could’ 가 15-16세기에 잉여음(excrecent)-/l/이 첨가되어 ‘could’ 가 되었다가, 다시 초기현대영어에서 ‘could’ 의 영향으로 ‘should’ 의 /l/이 탈락되었다는 사실은 앞서 Ekwall 주장을 뒷받침한다.⁹

⁹ ‘should, could, would’ 에 대한 고대영어(Old English)와 중세영어(Middle English)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should’, OE sc(e)olde > ME sholde > EModE [□u:d]; ‘could’, OE

지금까지 살펴본 /l/ 탈락현상에 대한 통시적 설명은 한계가 있다. 첫째, 각 예들의 설명은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유사 예들에 대한 설명의 예측성이 미약하다. 둘째, 예를 들면 /l/-모음화와 같이,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일련의 음운규칙의 적용 근거가 충분치 않다. 따라서 /l/ 탈락 현상을 최적성이론(Optimality theory: OT)에 근거한 다른 음운론적 접근방식으로 살펴보겠다.

7. 최적성이론의 제약을 통한 분석

OT 문법에서 중요한 요소는 제약(constraint)의 설정과 제약간의 순위(rank)이다. 제약은 크게 유표제약(marked constraints)과 충실성 제약으로 구분된다. 충실성 제약은 기저형(input)과 표면형(output) 사이의 유사성 정도를 요구하는 제약이지만, 유표제약은 출력형이 적형(well-formedness) 조건에 만족해야 할 것을 요구한다(오관영 2008). 이제 본고에서 고려해왔던 단음절 IC 유형의 어말에서 발생하는 /l/ 탈락현상을 OT의 일련의 제약과 제약들간 순위설정으로 좀더 일관성 있게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l/ 탈락이 발생하는 환경을 살펴보면, /l/은 [-high(+long), +back] 모음과 [-cor] 자음 사이에서 탈락한다¹⁰. 따라서 이와 같은 환경에서 /l/이 나타나는 것을 금하는 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19) *Vowel [-high(+long), +back] CC_[-cor]: No [-high(+long), +back] vowels with CC[-coronal].

또한 /l/을 포함한 기저형에 있는 말음의 모든 분절음은 표면형에 있는 분절음과 상응해야 한다는 최대복사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20) MAX-SEG (CODA): Underlying coda segments are present in the output.

그리고 표면형에 있는 말음의 모든 분절음은 기저형에 있는 분절음과 상응해야 한다는 의존제약을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21) DEP-SEG(CODA): Every coda segment of output has a correspondent in input.

위에서 제시한 충실성 제약 외에, 기저형의 가장자리에 오는 분절음은 표면형에서 그와 상응하는 분절음도 가장자리에 와야 한다는 고정제약을

cūthe > ME coude; would', OE, ME wolde.

¹⁰ 'golf, solve' 는 /l/ 탈락이 발생하는 동일한 환경에 있지만 탈락되지 않은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한다.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 (22) ANCHORING-R: Underlying segments at the right periphery have a correspondent at the right periphery of the output.

이제 /l/ 탈락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위 제약들간의 등위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V[-H, +B] CC_[-cor] > ANCHOR-R > DEP-SEG > MAX-SEG

표 1

/talk/	*V[-H(+L), +B]CC _[-cor]	ANCHOR-R	DEP-SEG	MAX-SEG
a. t□:k				*
b. t□:lk	*!			
c. t□:l		*!		*
d. t□:lək			*!	

이제 /l/ 탈락이 일어난 ‘talk’ 을 일련의 제약을 적용시켜 분석한다면 위 표1과 같다. 위 표1에서 후보(a)는 최하위 제약인 MAX-SEG을 위반하고, 후보(b)는 /l/이 탈락되어야 하는데 탈락되지 않아 제약 *V[-H(+L), +B]CC_[-cor]을 위반함으로 탈락되며, 후보(c)는 말음 /k/가 탈락되어 ANCHOR-R을, 그리고 후보(d)는 /ə/ 첨가로 인해 DEP-SEG 제약을 위반함으로, 결국 최하위 제약을 위반한 (a)가 최적의 후보로 선택이 된다. 다음 표2는 ‘calm’ 에 대한 분석인데, 후보(a)는 말음 /m/이 탈락되어 ANCHOR-R을 위반하고, (b)는 /l/이 탈락이 되지 않아 *V[-H(+L), +B]CC_[-cor]을 위반함으로 탈락되며, (d)는 /ə/ 첨가로 인해 DEP-SEG 제약을 위반한다. 그리고 (c)는 기저형에 있는 /l/이 탈락함으로 최하위의 제약인 MAX-SEG을 위반하여 결국 최적의 후보로 선택이 된다.

표 2

/calm/	*V[-H(+L), +B]CC _[-cor]	ANCHOR-R	DEP-SEG	MAX-SEG
a. ka:l		*!		*
b. ka:lm	*!			
c. ka:m				*
d. ka:ləm			*!	

III. 결론

본 연구는 음절말 IC 자음군에서 /l/이 기저에 존재하였지만 탈락된 것으로 보고 이 현상을 규명해보기 위해 음절말 자음군조건, 공명도배열일반화와, 자음군단음화, 자질수형도를 통해 분석해 보았다.

음절말 자음군 조건을 통한 분석에서는, /l/ 탈락이 발생하는 환경이 음절말 운모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명도일반화에 의한 분석에서도 /l/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동일하게 공명도 계층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접근방식도 그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는 적절하지 못하였다.

다음으로 자음군단음화를 통해 분석에서, ‘sign, design’ 등에서 /g/가 탈락하는 것과 같은 측면으로 ‘balk’ 에서 /l/이 탈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유사 환경인 ‘silk’ 와 달리 탈락이 발생하는 이유를 적절히 설명할 수 없었다.

복합자음과 융합에 의한 분석에서는 음절말 설측음이 연구개음화되는 경우는 두 별개 조음자가 조음중복이 일어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유사한 환경에서 /l/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조음중복이나 융합으로도 설명할 수 없었다.

자질도형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조음장소 교점 아래 동일 자질이 인접해 나타남으로 OCP 위반을 회피하기 위해 부분동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하는데, /l/ 탈락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분사를 통해 부분동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더라도, /l/ 탈락이 발생하는 경우는 동화라기 보다는 탈락이 발생함으로, 오히려 이 경우는 중연구개음화가 발생한 것으로 고려해 보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접근방식들은 /l/ 탈락현상에 대해 어떤 만족스런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역사적 측면으로 /l/ 탈락이 발생하는 예들을 살펴보았는데, /l/이 중세영어시기에 모음화가 되고, 이로 인해 생성된 이중모음은 다시 모음의 단음화가 되어 /l/ 탈락을 되거나, 반대로 모음 /u/가 삽입되어 이중모음이 된 다음, 다시 /l/이 탈락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현상을 음운론상으로 좀더 일관성 있는 설명을 시도해보기 위해, OT의 틀에서 일련의 제약을 설정하고 등위를 통해 설명해 보았다. 본 연구가 단음절말에서의 IC 자음군 분석에 한정하였지만, 파생이 이루어진 다음절의 경우나, 한국인 화자들이 예들 들면 영어 ‘lm’ 이 한국어로는 ‘ll’ 과 같이 되는데, 이 때 한국인 화자들의 경우는 실제 발화에서 /l/ 발음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 등과 같은 영어 교육적 측면과 그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양선기.(2009). *영어음운론*. 한국문화사.
 오관영.(2004). 멀티교육을 통한 영어학습 향상에 대한 연구. *현대영어교육*, 제5권 2호, 현대영어교육학회.
 _____.(2008). 이화에 대한 통시적 접근과 유표제약-OCP의 비교. *영어영문학21*,

제21권 2호, 21세기영어영문학회.

- Beal, J.C.(1999). *English Pronunciation in the Eighteenth Century: Thomas Spence's Grand Repository of the English Language (1775)*. Oxford: Clarendon Press.
- Borowsky, T.(1986). *Topics in the Lexical Phonology of English*.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assachusetts, Amherst.
- Browman, C.P. & L.M. Goldstein.(1989). Articulatory gestures as phonological units. *Phonology* 6: 201-51.
- Casagrande, J.(1984). *The Sound System of French*. Georgetown Univ.
- Clements, G.(1985a). The geometry of phonological features. *Phonology* 2, 225-52.
- Côté, M-H.(2004). Consonant cluster simplification in Quebec French. *Probus* 16, 151-201.
- Colantoni, L. & J.Steele.(2007).Voicing-dependent Cluster Simplification Asymmetries in Spanish and French. In P. Preieto, J. Mascaró and Maria-Josep Solé, eds., *Segmental and Prosodic issues in Romance Phonology*, 109-132.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Collins, B. & Inger M. Mees.(2009). *Practical Phonetics and Phonology: 2nd ed.*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Dobson, E.J.(1957). *English Pronunciation 1500-1700*. Oxford.
- Duanmu, S.(2009). *Syllable Structure: The limits of Variation*. Oxford.
- Durand, J.(1990). *Generative and Nonlinear Phonology*. London and New York: Longman.
- Ekwall, E.(1980). *A history of Modern English Sounds and Morphology*. Oxford: Basil Blackwell, 63-65.
- Hale, M.(2007). *Historical Linguistics: theory and method*. Blackwell Publishing.
- Halle, M. & Mohanan, K. (1985). Segmental phonology of Modern English. *Linguistic Inquiry* 16, 57-116.
- Herrick, D.(1999). Catalan Phonology: Cluster Simplification and nasal place assimilation. In Wiltshire, C. R. and J. Camps, eds., *Romance Phonology and Variation*, 69-83.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Holt, D.E.(2000). The Articulator Group and Liquid Geometry: Implications for Spanish phonology present and past. In Wiltshire, C. R. and J. Camps, eds., *Romance Phonology and Variation*, 85-99. John Benjamin Publishing Co.
- Keyser, S.J. & K.N.Steeven.(1994). Feature geometry and the vocal tract. *Phonology* 11. 2:207-36.
- Kiparsky, P.(1995). The Phonological basis of sound change. In J. Goldsmith, ed.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640-70. Cambridge, MA: Blackwell.
- Mascaró, J.(1991). Iberian spirantization and continuant spreading. *Catalan Working Papers in Linguistics*. 167-179. Barcelona: Universitat Autònoma de Barcelona.
- Pyles, T. & J.Algeo.(1992).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the English Language* 4th ed. Harcourt.

- Sagey, E.(1986). *The Representation of Features and Relations in Nonlinear Phonology*.
 Doctoral dissertation, MIT. Published by Garland Press, New York.
- Selkirk, E.O.(1982). The Syllable. In H. vander Hulst and N. Smith, eds., *The Structure of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Dordrecht: Foris.
- Walsh D.L.(1997). Representing laterals. *Proceedings of the 25th Meeting of the North Eastern Linguistic Society* ed., by J.N. Beckman, 535-550. Amherst, Mass.: GLSA.
- Yip, M.(1991). Coronals, Consonant Clusters, and the Coda Condition. In Paradis C. and J.F.Prunet eds., *The Special Status of Coronals: Internal and External Evidence : Phonology and Phonetics* 2, 61-78. San Diego, California: Academic Press.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오관영

전남대학교 문사대 영어학과

550-749 전남 여주시 둔덕동 산 96-1 번지

Tel: 061-659-7519

Email: okyoung@chonnam.ac.kr

Received in October 15, 2010

Reviewed in November 20, 2010

Revised version received in December 15, 2010